



나의 수행법

신향화 (上)

내가 불교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인과응보'란 말 때문이다.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그 말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받는 모든 고통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에서 지어놓은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억울했다. 또 로또 복권 한방에 내 업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서 막막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이론 정립이 반복에 되지 않은 상태로 불교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인연을 맺은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훤'을 연습했다. 진언수행의 기본은 몸으로 결인(비로자나불수인)과 결가(부좌)하고, 입으로



복의 수단으로만 여겼다는 점이 있다. 처음에는 시험을 잘 보고 싶다가나 원하는 소원이 있다거나 할 때, 염송과 회사를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원도 커지고 바라는 것도 많아지면서 점점 회사와 염송이 수단이 되어 간다는 자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난 삼밀관행(三密觀行)의 요체는 어떤 것일까. 또 어떻게 육자진언을 염송해야 하고, 육자진언의 뜻은 무엇일까? 진언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렇게 진언을 간절히 외는 어느 순간, 내가 지은 모든 악업에

10년 이상 기복 수단으로 진언수행 어느날 문득 문제점 깨닫고 참회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훤을 염송하고, 뜻으로 관(마음으로 범신불을 관함)하면서 부처님의 몸과 입과 뜻을 좇아 이 몸 이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언수행의 시작은 의문투성이었다. 내가 부처님의 말과 행동과 정신을 흉내 내는 것 일뿐 '내가 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일상 생활 속에서 입과 몸과 뜻으로 짓는 죄업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법신불이 되겠어' 하며 의심만 키워갔다.

또 불공의 의미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미연(未燃)의 복 심고 미행(未行)의 화 끊는다'라는 진각종 교리를 집약한 <진각교전(眞覺敎典)>의 구절처럼, 눈앞에 닥친 일들(시련, 입학, 취직 등)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나를 볼 때마다 푸념이 커져만 갔다.

10년을 넘게 이렇게 진언수행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 수행의 문제점을 깨닫게 됐다. 원인은 내가 진언수행을 너무 기

대한 참회가 들었다. 그러면서 진언수행이 악업의 연으로 맺게 될 나쁜 일들을 현명하게 헤쳐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어렵게 알 수 있었다.

결국 난 '내가 법신불'이라는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 온 우주에 종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 곧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알라'는 <진각교전>의 말처럼, 아집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마음속엔 이미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었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도 불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진언수행은 하면 할수록 내 속의 불성을 생각해보고 깨닫게 하는 시간을 늘려왔다.

특히 죄를 짓기 쉬운 몸, 입, 마음(三業)은 다시 생각하면 더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 진언수행의 삼밀(三密)관행의 핵심이라는 것 또한 깨달았다.(계속)

서울 진언연구 교사

번뇌와 업장 녹여 '수행기틀' 제시

"눈에 보이는 중생 모두를 위해 다라니를 독송하라. 중생들에게 귀로 듣게 해 깨달음의 인연을 지어 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입으로 빠르게 다라니를 외게 하되 소리 소리마다 끊이지 않게 하면 금생에 성불할 수 있다."

참회와 발원의 경전, <천수경(千手經)>,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의 공덕과 의미를 강조한 <천수경>의 한 구절이다. 그럼 <천수경>은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을까. 또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왜 외는 걸까?

장구대다라니'는 왜 외는 걸까?

3월 27일 서울 수안사(회주 세민)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위신력,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천수다라니 백만번 독송 기도법회'를 입재했다. 불교계에서는 <천수경>을 '수행의 길라잡이'라 부르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불자들이 아첨 저역으로 늘 독송하는 <천수경>의 요체와 독송 자세 등을 알아본다.

'천수경'이 수행길라잡이 되는 이유?



3월 27일 서울 수안사에서 열린 '천수다라니 백만 번 독송 기도법회 입재식'에서 2백여명의 불자들이 다라니 독송을 하고 있다. 사진=노병철 기자

'천수경'의 요체

먼저 <천수경>의 경전사적 시원은 이렇다. 모체는 <법화경>이다. 그것을 축약한 것이 <관세음보살품>, 즉 <관음경>이고 <천수경>의 모경(母經)이 된다. 직계로 따지면,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아들 격이고 그것을 압축한 것이 바로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훤'이다. 따라서 <천수경> 수행의 요체는 다라니 독송에 있다.

김호성 교수는 "천수경에서 대법천왕이 관세음보살에게 '이 다라니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마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묻자, 관세음보살이 9가지의 마음(九心)을 제시하고 있다"며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의 요체는 바로 이런 마음을 얻으라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결국 <천수경> 수행의 핵심은 자비심, 평등심, 무위심(無爲心), 공경심(恭敬心),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 공관심(空觀心), 무견취심(無見取心) 등의 9가지 마음이 곧 다라니의 본질과 생명력을 깨닫는데 있다는 것으로, 이는 <천수경> 수행의 목적이 된다.

'수행의 길라잡이'가 되는 이유

수행법 제시가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천수경>은 참회법, 염불법 등 실질적인 자기변화를 이끌어내는 수행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신묘장구대다라니로 대변되는 진언 독송은 <천수경>의 중핵을 이룬다. 42가지 사례별로 제시되는 진언들은 재가불자에게 마음공부의 '방황타'가 돼준다. 여기에 선의 도리까지 담고 있어, '수행의 기초교과서'가 된다.

한국불교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은 <천수경>의 이런 특징이 수행의 길라잡이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천수경>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업장을 녹이는 등 '수행의 기틀'을 마련해

모체는 '법화경'... '다라니' 독송이 핵심 진언이 곧 화두, 의미 억지 해석 말아야

준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천수다라니를 외는 사람에게 도심(道心·보리심)을 무르게 하고, 정법(正法)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는 <천수경>의 구절을 제시한다.

<천수경>의 이 같은 '수행 기초서'로서 역할은 근세 선지식 수월 스님(1855~1928)이 평생 <천수경>과 천수다라니를 지송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수월 스님의 행적을 좇은 책 <불 속을

걸어가는 말>을 펴낸 춘천지방경찰청 김진태 강릉지청장은 "천장암 행차 때부터 하루 종일 일만 했던 수월 스님은 항상 천수다라니를 외면서 번뇌 망상과 업장을 완전히 녹여버려 수행의 기초를 다졌다"고 말한다.

'수행 기틀' 다지는 지침

<천수경 선해(禪解)>를 펴낸 대전 국은사 주지 묘봉 스님은 "천수경은 천·만 가지 부

처님의 법문을 요약하고 그 핵심을 드러낸 것으로 선의 요지, 염불, 경전 등을 두루 섭렵해 전하고 있다"며 "선의 측면에서 천수경은 존재의 세계 그대모가 일심법계(一心法界)요, 불신(佛身)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다라니 속에 담겨진 의미는 번뇌를 없애는데 장애가 될 뿐"이라며 "다라니를 의음으로써 번뇌 망상을 깨부수면 성불할 수 있고, 바로 이 부분에서 다라니는 선에서 화두가 하는 기능을 정확히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독송 자세는

가장 중요한 자세로 '다라니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던져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 그래야만 맹목적인 주술과 기복행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심선계를 지키며 다라니를 독송할 것 △제법의 실상을 꿰뚫어 자성이 공임을 자각하는 이참법(理懺法)으로서의 참회자세 견지 △자력 수행의 태도 확립 등을 꼽고 있다.

전재성 회장은 이와 관련 "되도록 한역으로 음사된 다라니보다 원음에 가까운 범음(梵音)을 통해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3월 27일부터 '천수다라니 백만 번 기도'에 들어간 서울 수안사 회주 세민 스님은 "천수다라니를 독송할 때는 어떤 기원과 소원도 버리고 일심으로 정성껏 지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으로 바로 이곳이 극락정토임을 확인하고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용성 스님의 천수다라니 지송수행법

"생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인데, 어떻게 해야 견성(見性)할 수 있습니까?"

"지난 세상의 업장은 무겁고 선군은 약하니 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비심주(천수다라니)를 부지런히 외워라. 그러면 자연히 업장이 소멸돼 마음의 광명이 드러나게 된다."

한국 근대 고승 수월 스님과 용성 스님의 문답. 16살에 해인사로 출가한 용성 스님(사진·

1864~1940)은 의성 고운사에서 수월 스님을 법고, '천수다라니' 독송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대선사인 용성 스님은 천수다라니를 어떻게 지송했을까? 스님의 저서 <각해일륜(覺海日輪)>에 따르면, "항상 깨끗이 목욕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향을 피워 일심정성으로 다라니를 지송하라"며 4가지 독송법을 제



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라니를 소리 높여 외 때는 그 외는 것을 돌이켜 볼 것 △입 안의 소리로 외 때는 그 외는 소리를 돌이켜 볼 것 △입과 혀를 움직이지 않고 다라니를 생각할 때도 그 생각하는 것을 돌이켜 볼 것 △다라니를 외 때는 범서 '옴' 자가 달처럼 뚜렷하고 밝은 것을 관하며 외 것 등이

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관법(觀法)을 행하면, 자연히 마음이 청정해 모든 번뇌가 없어지고 마음 전체가 밝혀져 결국 '본 마음'을 깨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육자진언의 수행법과 공덕을 저술한 <육자영감대명왕경>에서 "육자진언을 염념불망(念不忘却)하게 외고 분명하게 생각하면, 무량삼매를 얻어 자성을 깨쳐 대가를 성취한다"고 기술했다. 이는 다라니 수행이 깨달음에 좋은 방법이 된다는 확인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이 깨달음에 있음을 설파한 것이다.



한국조동종 총본산 社團法人 韓國佛教曹洞禪林

원효불교대학 공개강좌 안내

본 대학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림의 종찰인 원효사가 불교대학 개강준비 일환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합니다. 본 대학은 부처님의 진리를 근본이념으로 선교결학(禪敎兼學)의 교학체계(敎學體系)와 불교지도자 및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동국대학교 (전)불교대학원장이신 오형근교수(철학박사)님을 모시고 공개강좌를 실시함을 알리오니 많은 동참하시어 불법의 진리를 증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강좌과목

- 가) 조동선학 논총(曹洞禪學論叢) - 필자 직강좌
- 나) 유식학입문(唯識學入門) - 마음의 체성과 작용을 자세하게 분류 체계화 설명
- 다) 불교의 윤회관과 영혼 -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영혼설과 업력 윤회의 도리 해설
- 라) 반야심경 - 대승불교의 공사상 해설
- 마) 인도불교의 선사상 - 소승선과 대승선(조동선) 사상적 해설 강좌

2. 기 간: 2005년 4월 7일 ~ 12개월

3. 시 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대학강의 기준)

4. 강 사: 동국대학교 (전)불교대학원장 오형근 명예교수(철학박사)

5. 입학자격: (가) 승려 및 일반불자(성별제한없음) 나)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6. 입 학 금: 100,000원(원서료 및 교재비포함)

7. 수 강 료: 50,000원(매월)

8. 제출서류: 본대학 소정의 서류(여권사진 3매)

9. 수강신청 마감일: 2005년 4월 6일

10. 특 전: (가) 본 대학졸업자는 졸업장 및 졸업 기념패 수여 나) 본 대학졸업자는 종단 전교사 자격증 수여

11.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호 원효사

원효불교대학 교학처 02)718-6221 / 713-0475

「曹洞禪學論叢」 제1집 조동선학논총

◇ 曹洞宗 源流訣 - 五家法統次序譜

釋金堂 (파평산 휴휴암주)

◇ 조동종 默照禪의 연구

吳亨根 (동국대 명예교수)

◇ 曹洞禪思想의 연구

洪修平 (중국 南京大 교수)

◇ 羅末麗初의 曹洞禪

金永斗 (원광대 교수)

◇ 조선시대 曹洞禪의 흐름

韓鍾萬 (원광대 교수)

◇ 중국 조동선과 新羅禪師 - 「동산록」所載의 신라인식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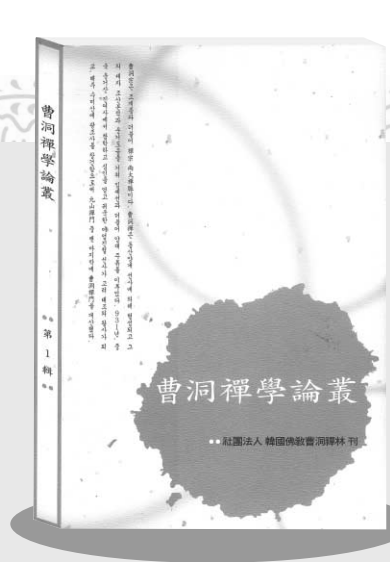
下麟錫 (전 아주대 교수)

◇ 眞如禪寺의 과거와 현재

崔錫煥 (월간 「선문화」 발행인)

◇ 현대중국 선종 중흥호 虛雲和尚 行狀

- 誠 (운거산 진여사 방장)



조동선(曹洞禪) 첫 연구서 출간